

삶에 대한 가치관과 청소년의 일상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정 명 숙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복지심리학과

김 혜 리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고-대학생, 성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청소년의 일상행동에 대한 문제인식 정도에서 상호간에 어떤 차이점 또는 유사점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세대간에 차이점과 유사점이 둘 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선 가족의 중요성이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젊은 층일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세대에 관계없이 가정화목을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으며, 중고-대학생뿐 아니라 성인과 노인까지도 상당히 남녀평등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유사점이 드러났다. 또 성인과 노인들은 중고-대학생들에 비해 청소년이 유행추구 행동이나 컴퓨터관련 행동 같은 청소년 특유의 행동을 하는 빈도를 더 낮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청소년이 그런 행동을 할 경우 훨씬 더 크게 문제가 된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이 흔히 하는 행동 중에서 어떤 것이 특히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어른을 무시하는 행동이 가장 용납될 수 없는 문제행동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끝으로, 전통적 가치지향과 사회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에서 성별과 세대집단간 상호작용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세대차, 가치관, 가족가치관, 청소년

세대는 보통 연령으로 구분한다. 동일 연령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문화권에

자료 분석을 도와준 양계민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설문지 실시를 도와주신 각급학교 선생님들, 정성껏 설문지에 응답해준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과 조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신저자 : 정명숙, E-mail: mchung@kkot.ac.kr

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유사한 삶의 경험을 통해 사고 방식과 행동방식에 공통점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세대로 규정할 수 있다. 삶의 경험과 성장배경이 서로 다를 때 사람들이 보이는 가치관이나 행동특성도 달라지게 되며, 이를 흔히 포괄적으로 세대차라 부른다(박재홍, 1999; Elder, 1981, 1994; Mannheim, 1952).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세대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관심의 정도에 걸맞게 세대차와 관련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흔히 서구의 세대차 연구들은 세대차가 크게 존재한다는 연구, 세대차는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로는 없다는 연구, 그리고 세대간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연속성이 있다는 연구의 세 가지로 나뉘고 있다(Bengtson, 1975). 우리나라의 연구들은 대부분 세대간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성세대는 전통적 가치를 지향하는 반면 신세대 또는 청소년 세대는 서구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김애순, 1997; 김일명, 김명자, 1989; 나은영, 민경환, 1998; 나은영, 차재호, 1999; 박임옥, 2000; 신은숙, 1976; 윤진, 1985; 이재창, 최운보, 정영애, 최경선, 1983; 정철희, 1997; 조혜선, 1990; 차재호, 1985). 그러나 세대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도 상당수 있다(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정태연, 한광희, 2001; 조성남, 1991).

가치관의 세대차이에 관한 연구결과들의 비밀관성은 주로 연구방법의 차이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정태연, 2001; 정태연, 한광희,

2001). 가치관의 평가차원(예, 사고 대 행동)과 평가대상(자신 대 타인)을 달리 하는 연구들이 혼재해 있어 연구결과들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국 세대차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보다는 가치체계나 행동특성의 어떤 측면에서 세대차가 나타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그로 인해 세대차이도 그 어느 나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되고 있다(나은영, 민경환, 1998; 나은영, 차재호, 1999).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높은 탈물질주의 또는 낮은 탈물질주의(즉, 물질주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선진국이나 후진국과는 달리, 한국과 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고연령층은 물질주의에 머물고 있는 데 반해 젊은 층은 급속히 탈물질주의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세대차이가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Inglehart, 1997). 우리나라의 현재 노인들은 삶의 대부분을 협동과 조화를 중시하는 농경시대에 태어나 보릿고개를 경험하며 생활한 세대이고, 성인들은 농촌사회에 태어나 근검절약과 노력을 통해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세대이며, 청소년은 풍요로운 산업화 시대에 태어나 선대가 겪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 첨단과 학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세대이다(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진우, 유호식, 2000). 본 연구에서는 이렇듯 삶의 경험 및 성장 배경에 질적인 차이가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 성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삶에 대한 가치관과 청소년 행동에 대한 지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흔히 세대는 현재의 사회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기성세대와 새로운 창의력과 적응력으로 기존질서에 변화를 시도하는 청소년 세대로 양분하는 경우가 많다(임희섭, 1986, 1997). 실제로, 앞서 언급한 세대차이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성인 세대와 청소년 세대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근래 들어 이 두 세대뿐 아니라, 현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회의 기초를 마련한 노인 세대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예, 김의철 등, 2000). 현재는 과거에 기반을 둔 것이고 현재를 통해 과거가 미래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차이 문제는 청소년과 성인뿐 아니라 노인까지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으로 분류된 집단 내에서도 연령별 차이가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김경신, 1998a),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보다 세대간격을 좀더 촘촘히 분류하여 세대 차이를 연구하였다. 즉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세 집단에 성인과 노인집단을 포함하여 총 다섯 세대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또 성인과 노인은 자녀 또는 손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인 부모와 조부모의 세 집단으로 각기 나누어 이들 상호간의 차이점과 유사점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대학생, 성인, 노인의 다섯 세대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이 삶에 대한 가치관과 청소년 행동에 대한 지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상호간에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첫째로 가치관과 관련해서는 부귀영화, 자아실현, 가정화목, 사회봉사 등 삶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관

과 결혼, 효도, 가족주의, 남녀역할과 같은 가부장적이고 가족중심적인 가치관에서 세대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특히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인간이 가장 먼저 접하는 사회 환경이라는 점에서 가족과 관련한 가치관은 여러 가치관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가정교육의 부재나 부모의 영향력 약화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가족의 중요성이나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가족가치관이 세대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인 가치관과 마찬가지로 가족가치관에서도 젊은 세대에 이르러 전통적 의식이 많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영역에 따라 아직도 전통적인 가치가 많이 남아 있음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예, 공미혜, 1993; 김순옥, 류점숙, 1984; 양명숙, 1996; 조소연, 오윤자, 2001). 그러나 지금까지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일부 집단의 특정 가치관 영역에 국한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가족가치관을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김경신, 1998a).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대학생과 이들을 자녀 또는 손자녀로 둔 부모와 조부모 세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족가치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려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치관의 세대집단간 차이뿐 아니라 세대와 성별의 상호작용 여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치관, 특히 가족가치관과 관련한 연구결과들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는데(예, 강호철, 1984; 김

영옥, 1983; 양명숙, 1996; 옥선화, 1989; 이동수, 1987; 이은경, 1999; 장휘숙, 1995; 조소연, 오윤자, 2001; 홍준숙, 1987), 대체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전통 지향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오랜 부계사회의 역사를 통해 남성우위의 구조가 사회문화적 지지를 받아왔으므로 남성이 여성보다 현재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경순, 1999). 사실 성별은 가족가치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조소연, 오윤자, 2001). 그러나 성차 관련 연구들은 대개가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연령 또는 세대에 따른 성차의 변화 추세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명언 등(2000)은 청소년집단(10대와 20대)과 성인집단(30, 40, 50대)의 세대차 인식과 심리적·행동적 특성을 비교하였으나, 성별을 공변인으로 처리함으로써 성별차이 또는 세대와 성별의 상호작용은 분석하지 않았다. 노년, 중년, 청소년의 3세대의 가족가치관을 연구한 김경신(1998b)은 중년과 청소년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가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데 반해, 노년에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거나 또는 여성이 더 가족중심적임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성별과 세대 간에 상호작용이 있을 가능성을 시

사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성차를 각 세대별로 분석함으로써 세대와 성별의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살펴보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와 성별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세대차이와 관련된 현상을 더 정교하게 해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세대차의 두 번째 측면은 청소년의 일상행동에 대한 지각이다. 청소년과는 성장배경이 다른 성인과 노인들이 청소년 자녀/손자녀들이 밤을 새워 채팅을 한다거나 속어를 쓴다거나 부모 말을 듣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문제성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지,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성인과 노인의 문제정도 인식이 청소년 자신의 인식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런 인식 차이는 그 크기에 따라 단순히 차이에 머물지 않고 세대간 갈등과 대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유형의 행동들에 대해 세대간에 문제정도 인식이 크게 다른지(따라서 세대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그리고 노인의 다섯 세대를 대상으로 그들의 가치관 및 청소년의 일상행동에

표 1. 세대집단과 성별에 따른 분석대상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노인
남	74	48	109	214	72
여	71	87	73	251	66
계	145	135	182	465	138
연령평균	12.90	18.70	23.05	43.86	72.50
표준편차	.72	.77	2.34	5.20	5.68
범위	12-15	16-18	19-25	33-59	62-91

대한 지각에서 상호간에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 법

대상

표 1에는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제시되어 있다. 전체 분석대상은 총 1,065명으로서 중학생 145명(남 74, 여 71), 고등학생 135명(남 48, 여 87), 대학생 182명(남 109, 여 73), 성인 465명(남 214, 여 251), 그리고 노인 138명(남 72, 여 66)으로 구성되었다. 성인은 표집대상 중·고·대학생의 부모였고, 노인은 노인복지회관의 여러 취미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노인정에 나와 소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각 집단별 평균연령은 중학생 12.9세, 고등학생 18.7세, 대학생 23.0세, 성인, 43.9세, 노인 72.5세이었다.

표 2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 집단에 따른 부모와 조부모 세대의 분포를 제시하였다. 중·고·대학생 부모의 평균연령은 각각 41.6세, 43.7세, 49.4세였고, 중·고·대학생을 손자녀로 둔 조부모의 평균연령은 각각 69.8세, 71.8세, 그리고 74.9세였다.

자녀용, 부모용, 조부모용 질문지를 각기 따로 제작하였다. 질문지는 가족가치관과 일반가치관, 그리고 청소년의 일상행동 빈도 및 문제정도 지각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여기에 연령, 성별, 교육정도, 경제수준, 학업성적 등 필요한 배경정보를 구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자녀용, 부모용, 조부모용 질문지는 측정변인이 기본적으로 동일하였으나, 조사대상에 따라 질문에 사용되는 어휘를 적절히 조정하였다. 가족가치관과 일반가치관 문항의 경우에는 응답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청소년의 일상행동에 대한 지각의 경우에는 중·고·대학생은 자기 자신에 대해, 부모와 조부모는 각각 자신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1) 가족가치관

선행연구들은 가족가치관을 여러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연구마다 영역 분류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결혼 및 자녀, 성역할, 부양 및 효도, 그리고 가족주의 가치관의 네 가지로

표 2. 자녀/손자녀 집단에 따른 부모와 조부모 세대의 분포

	부모			조부모		
	중	고	대	중	고	대
남	93	84	37	25	20	27
여	108	93	55	17	18	31
계	201	177	87	42	38	58
연령평균	41.58	43.72	49.43	69.79	71.84	74.90
표준편차	4.13	4.20	5.14	5.73	4.94	5.14
범위	33-60	35-52	39-61	62-91	63-87	64-89

수렴해 볼 수 있다(예, 김경신, 1998a; 김순옥, 류점숙, 1984; 김일명, 김명자, 1989; 박진숙, 1984; 박혜인, 1990; 옥선화, 1984). 본 연구에서는 김경신(1998a)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들이 41문항을 제작하여 가족가치관 측정에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가족주의(13문항), 성역할(8문항), 결혼(4문항), 효도(8문항)의 4개 하위변인이 추출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33문항을 최종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변인에 해당하는 문항의 예를 들면 “부부 사이가 나빠도 자식을 생각해서 이혼하면 안 된다” 또는 “나의 행복은 가족의 행복에 많이 달려있다”(가족주의), “아들이든 딸이든 구별없이 잘만 키우면 된다”(성역할), “결혼은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결혼), “장남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부양 책임을 져야 한다”(효도)이다.

가족가치관은 5점 척도에 의해 측정하였으며, 가족가치관 점수가 높다는 것은 개인보다 가족 우선시, 남아선호, 성역할구분, 결혼중시, 효도와 부모부양 중시 등 가부장적이고 보수지향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강하게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일반가치관

김명언 등(2000)과 김의철 등(2000)이 사람들이 삶의 목표로 삼는 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 18개 문항을 5점 척도에 의해 실시하였다. 그러나 요인분석 결과 2문항(7과 11)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문항으로부터 부귀영화(명예, 권력, 학벌, 부), 가정화목(화목한 가정, 건강, 진정한 우정, 효), 자아실현(자아실현, 성공적인 직장생활, 신나는 삶, 창의성), 사회봉사(자연보호, 봉사, 전통, 진정한 신앙생활)

의 4개 하위변인이 추출되었으므로 이 문항들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하위변인들은 문항이 각각 4개씩이었다.

3) 청소년의 일상행동의 빈도 및 문제정도 지각

김현정(1994; 황상민, 김현정, 1998)의 연구결과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흔히 하는 행동들을 나타내는 내용의 문항 25개를 제작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청소년 자신이, 또는 성인과 노인의 경우에는 청소년 자녀 또는 손자녀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빈도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각각 5점 척도에 표시하게 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한 반응을 요인분석한 결과 6개 문항을 제외한 19개 문항으로 이루어

표 3. 측정변인의 신뢰도

변인	하위변인	문항수	α
가족가치관	가족주의	13	.6455
	성역할	8	.8136
	결혼	4	.7333
	효도	8	.7494
일반가치관	부귀영화	4	.7325
	가정화목	4	.7425
	자아실현	4	.7877
	사회봉사	4	.7199
청소년 행동의 빈도 지각	유행추구	8	.7978
	어른무시	5	.7158
	컴퓨터 산만행동	3	.5518
청소년 행동의 문제정도 지각	유행추구	8	.8746
	어른무시	5	.8023
	컴퓨터 산만행동	3	.7503
		3	.5842

어진 4개의 하위변인이 추출되었다. 즉 외모 꾸미기에 관심이 많고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등의 유행추구 행동(8문항), 버릇없이 행동하고 어른 말을 따르지 않는 어른무시 행동(5문항), 밤새워가며 게임, 채팅 등을 하는 컴퓨터 관련 행동(3문항),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과 같은 산만행동(3문항)이다.

각 변인의 Cronbach α 신뢰도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신뢰도는 문항 수가 두셋에 불과한 일부 경우에는(컴퓨터, 산만행동) .55 정도로 약간 낮은 편이었으나 나머지는 .64~.87 사이에 있어 대체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실시방법

질문지는 2003년 7월에서 8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중·고·대학생은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수업담당 교사나 교수가 직접 질문지를 실시하고 대학원생 연구조교가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보조하였다. 질문지 실시에 소요된 시간은 약 40분 정도이었으며, 각 학생들은 부모용 질문지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부모에게 각각 실시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응답자들의 성실한 응답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예쁜 그림이 들어간 파일을 답례로 제공하였다.

표집대상 노인들은 대부분이 노령으로 인해 질문지를 직접 읽고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집단으로 질문지를 실시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훈련된 연구조교들이 복지기관이나 노인정을 방문하여 노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문항을 읽어주고 답지에 그들의 응답을 대신 기록하는 개인면접방식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개별

면접은 노인정이나 복지기관의 조용한 장소에서 실시되었으며, 노인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약간의 다과를 제공하였다.

결 과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

표 4에 가족가치관과 일반가치관의 평균을 제시하였다.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를 성별과 함께 이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¹⁾.

먼저 전체집단 평균을 보면, 가족가치관 중에서는 결혼이 총 5점 만점에 4.03점이었고 가족주의와 효도도 각각 3.66점과 3.02점으로 셋 다 중간점수인 3점을 넘어섰다. 그러나 성역할 점수는 다섯 세대 모두 총 5점에서 2점을 넘기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이 세대와 연령에 관계없이 상당히 남녀평등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반가치관은 가족가치관보다 전반적으로 점수가

1) 본 연구의 자료는 주로 변량분석에 의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성인집단은 표집대상인 중고대학생의 부모들이었는데, 한 가정 내의 부모와 자녀는 가치관이나 행동지각에서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량분석의 독립적 표집이라는 가정이 훼손되었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측정치에 대해 부모와 자녀의 평가 간 상관정도를 알아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경우 상관의 크기가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자녀의 평가가 상당히 독립적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를 변량분석에 의해 분석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4. 세대집단과 성별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가족가치관				일반가치관				
	가족주의 M(SD)	성역할 M(SD)	결혼 M(SD)	효도 M(SD)	가정화목 M(SD)	자아실현 M(SD)	부귀영화 M(SD)	사회봉사 M(SD)	
중	남	3.72(.50)	1.87(.44)	3.74(.81)	3.23(.54)	4.74(.44)	4.30(.67)	3.57(.89)	4.08(.72)
	여	3.29(.49)	1.55(.46)	3.56(.73)	2.81(.49)	4.70(.48)	4.27(.62)	3.46(.73)	3.75(.76)
고	남	3.46(.50)	1.74(.47)	3.82(.69)	3.04(.65)	4.57(.53)	4.34(.66)	3.74(.82)	3.40(.82)
	여	3.15(.54)	1.50(.34)	3.42(.77)	2.63(.54)	4.64(.44)	4.40(.59)	3.75(.66)	3.50(.73)
대	남	3.44(.55)	2.02(.46)	4.12(.75)	3.17(.64)	4.61(.44)	4.40(.59)	3.80(.75)	3.45(.79)
	여	3.05(.46)	1.55(.31)	3.52(.71)	2.57(.44)	4.55(.45)	4.50(.42)	3.68(.70)	3.37(.74)
성인	남	3.86(.54)	2.26(.56)	4.23(.78)	3.09(.70)	4.34(.75)	4.03(.78)	3.52(.86)	3.61(.81)
	여	3.76(.52)	1.90(.54)	4.08(.78)	2.78(.73)	4.36(.64)	3.95(.89)	3.45(.81)	3.75(.79)
노인	남	4.15(.46)	1.98(.57)	4.77(.33)	3.62(.80)	4.72(.42)	4.26(.62)	3.60(.79)	4.20(.61)
	여	4.43(.37)	2.00(.52)	4.75(.44)	3.83(.74)	4.70(.40)	4.35(.77)	3.79(.83)	4.38(.58)
계	중	3.52(.51)b	1.71(.48)b	3.61(.79)a	3.04(.56)b	4.73(.45)c	4.28(.64)b	3.51(.80)a	3.92(.76)c
	고	3.26(.55)a	1.59(.41)a	3.55(.76)a	2.78(.62)a	4.61(.47)b	4.38(.61)b	3.74(.71)b	3.46(.76)a
	대	3.28(.55)a	1.82(.46)c	3.96(.79)b	2.91(.64)ab	4.59(.45)b	4.44(.53)b	3.75(.73)b	3.42(.77)a
	성인	3.81(.54)c	2.07(.58)d	4.18(.74)c	2.95(.73)b	4.35(.69)a	3.99(.84)a	3.49(.83)a	3.69(.80)b
	노인	4.27(.43)d	1.99(.56)d	4.74(.40)d	3.70(.77)c	4.71(.42)bc	4.29(.70)b	3.70(.82)b	4.30(.60)d
전체	3.75(.57)	2.07(.54)	4.17(.78)	3.20(.70)	4.53(.61)	4.21(.71)	3.62(.83)	3.70(.82)	
F	성별	3.57(.64)	1.75(.51)	3.91(.84)	2.86(.74)	4.52(.56)	4.18(.78)	3.57(.78)	3.73(.79)
	세대집단	3.66(.62)	1.90(.55)	4.03(.81)	3.02(.73)	4.52(.59)	4.20(.74)	3.60(.80)	3.72(.81)
	상호작용	101.90***	33.32***	60.67***	44.94***	19.47***	17.54***	5.63***	33.02***

주. 첨자 a, b, c, d는 사후검증(Duncan test) 결과 $p < .05$ 수준에서 동질집단을 표시한 것임. 이후의 모든 표에서 *는 $p < .05$, **는 $p < .01$, ***는 $p < .001$ 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더 높은 편이었는데, 전체집단의 평균점수는 가정화목과 자아실현이 각각 4.52점과 4.20점으로 상당히 높았고 사회봉사와 부귀영화도 각각 3.72점과 3.60점으로 중간점수인 3점을 훌쩍 넘어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대에 관계없이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가치들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가족가치관

가족가치관의 하위변인인 가족주의, 성역할, 결혼, 효도 모두 세대집단과 성별이 각각 의미있는 주효과가 있었으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도 효과가 있었다.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세대집단간 차이의 사후분석 결과는²⁾

전반적으로 노인이 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성인이며, 고등학생이 가장 점수가 낮은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성인과 노인 세대가 중·고·대학생 세대보다 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족중심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별의 경우 4개 하위변인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점수가 더 높았으나,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차이가 없어지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추세를 보였다(그림 1 참조). 즉 중학생이 결혼에서 남녀차이가 없었던 것을 제외하면 중·고·대학생들은 전부 남자가 여자보다 점수가 더 높았지만[*ts*

2) 세대간 차이의 사후검증은 이후 전부 Duncan test에 의한 것이며 유의수준은 $p < .05$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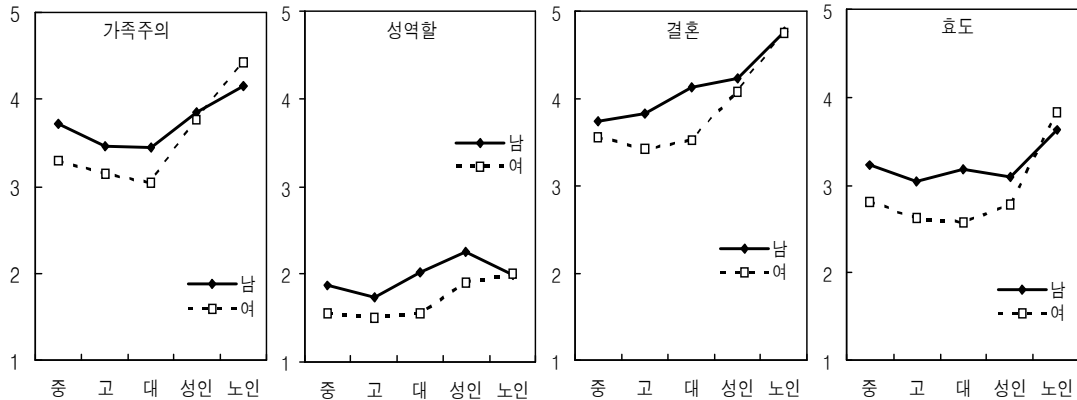


그림 1. 가족가치관의 네 하위변인에서 세대집단 x 성별 상호작용

≥ 2.95, $p < .01$], 성인의 경우 성역할과 효도에서만 남자의 점수가 더 높았고[$t_s \geq 2.60$, $p < .01$] 결혼과 가족주의에서는 남녀차이가 의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거나(성역할, 결혼, 효도) 여자가 남자보다 오히려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족주의, $t(121) = 3.675$, $p < .001$).

2) 일반가치관

일반가치관은 4개 하위변인 모두에서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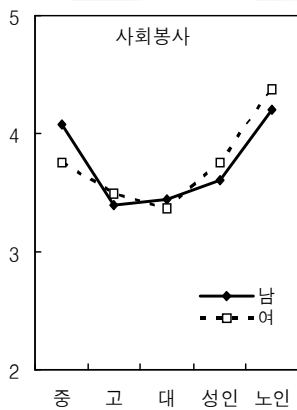


그림 2. 일반가치관(사회봉사)에서 세대집단 x 성별 상호작용

집단별 주효과는 크게 의미가 있었으나, 사회봉사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성별 주효과 또는 세대집단과 성별간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가정화목 점수는 중학생과 노인이 가장 높았고 성인이 가장 낮았다. 자아실현 점수는 성인이 다른 네 집단에 비해 낮았고 후자 네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부귀영화는 중학생과 성인의 점수가 고등학생, 대학생, 노인의 점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사회봉사의 경우 노인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 중학생, 성인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가장 점수가 낮았다. 그러나 중학생은 남자가 여자보다 점수가 더 높은데 반해($t(141) = 2.667$, $p < .01$), 나머지 세대에서는 남녀간에 의미있는 점수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s > .10$, 그림 2 참조). 특히 성인과 노인의 경우 통계적 유의 수준에는 조금 못 미쳤으나 여자들이 점수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성인, $t(459) = 1.885$, $p = .060$; 노인, $t(132) = 1.743$, $p = .084$]. 즉 나이가 들수록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봉사에 더 큰 중요

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대체로 노인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세대에 비해 사회봉사와 가정화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학생과 고등학생은 자아실현과 부귀영화를, 그리고 중학생은 가정화목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성인은 자아실현, 가정화목, 부귀영화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고, 사회봉사에서는 다섯 집단 중에서 중간위치를 차지해, 다른 세대집단과 비교해 볼 때 일반가치관을 구성하는 하위변인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적게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청소년의 일상행동 빈도 및 문제정도 지각에 나타난 세대간 차이

표 5에 청소년 행동에 대한 빈도지각과 문제정도 지각의 평균점수 및 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빈도지각의 전체평균을 보면, 가치관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데 반해 빈도지각 점수는 어떤 세대 또는 어떤 유형의 행동에서도 중간점수인 3점을 넘어서지 못해, 모든 세대집단에서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행동들을 그리 많이 하지는 않는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정도 지각의 전체평균을 보면, 산만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세 유형의 행동이 전부 중간점수인 3점을 넘어섰다. 특히 어른무시행동은 평균 3.53점으로, 모든 세대집단에서 다른 세 유형의 행동보다 상대적으로 문제가 더 심각한 행동으로 지각되고 있었다(대응표본 t 검증, $t_s \geq 1.97, p < .05$).

표 5. 세대집단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 일상행동의 빈도 및 문제정도 지각의 차이

		빈도 지각				문제 정도 지각			
		유행추구 M(SD)	어른무시 M(SD)	컴퓨터 M(SD)	산만행동 M(SD)	유행추구 M(SD)	어른무시 M(SD)	컴퓨터 M(SD)	산만행동 M(SD)
중	남	1.64(.73)	2.54(.66)	2.01(.80)	1.88(1.05)	3.27(.93)	3.62(.82)	3.41(.98)	2.98(.96)
	여	2.08(.82)	2.66(.63)	1.72(.86)	2.37(1.03)	3.03(.76)	3.69(.55)	3.63(.79)	2.65(.76)
고	남	2.03(.82)	2.81(.62)	2.10(.71)	2.83(.92)	2.95(.82)	3.30(.63)	2.94(.84)	2.60(.70)
	여	2.14(.68)	2.67(.68)	1.84(.81)	3.08(.91)	2.66(.83)	3.43(.78)	3.14(1.00)	2.51(.66)
대	남	1.66(.46)	2.38(.56)	2.01(.68)	2.79(.85)	2.62(.88)	3.20(.82)	2.94(.92)	2.32(.75)
	여	1.98(.61)	2.26(.57)	1.60(.70)	2.98(.74)	2.54(.76)	3.35(.78)	2.97(1.02)	2.38(.77)
성인	남	1.94(.79)	2.19(.78)	1.79(.81)	2.39(.96)	3.06(.97)	3.41(.94)	3.36(1.11)	2.82(.82)
	여	1.90(.68)	2.23(.72)	1.82(.76)	2.57(.98)	3.01(.90)	3.43(.90)	3.50(1.08)	2.76(.79)
노인	남	1.78(.62)	1.82(.87)	2.21(.73)	2.12(.90)	3.59(.77)	4.24(.64)	3.99(.77)	3.65(.90)
	여	1.80(.67)	1.49(.51)	2.39(.96)	2.30(.94)	3.68(.77)	4.39(.59)	3.97(.70)	3.69(.75)
계	중	1.86(.80)a	2.60(.65)c	1.87(.85)a	2.13(.99)a	3.17(.86)b	3.64(.70)b	3.54(.89)b	2.80(.86)c
	고	2.07(.69)b	2.71(.66)c	1.89(.75)a	2.98(.92)c	2.79(.83)a	3.38(.73)a	3.08(.95)a	2.56(.67)b
	대	1.79(.55)a	2.33(.56)b	1.84(.71)a	2.87(.81)c	2.60(.83)a	3.27(.81)a	2.95(.96)a	2.36(.76)a
	성인	1.90(.72)a	2.21(.75)b	1.80(.77)a	2.48(.98)b	3.03(.94)b	3.42(.93)a	3.42(.99)b	2.79(.81)c
	노인	1.79(.66)a	1.62(.69)a	2.27(.84)b	2.18(.92)a	3.63(.79)c	4.31(.62)c	3.95(.74)c	3.66(.82)d
전체	남	1.82(.71)	2.29(.76)	1.95(.77)	2.41(.99)	3.06(.95)	3.50(.89)	3.32(1.04)	2.83(.91)
	여	1.96(.70)	2.27(.74)	1.84(.82)	2.65(.98)	2.97(.89)	3.57(.85)	3.45(1.03)	2.76(.84)
F	세대집단	3.74**	48.72***	10.85***	23.02***	28.75***	39.38***	23.85***	55.53***
	성별	12.25***	3.02*	7.54**	15.14***	3.11	3.39*	2.87	1.92
	상호작용	4.34**	2.63*	4.23**	.83	1.05	.32	.40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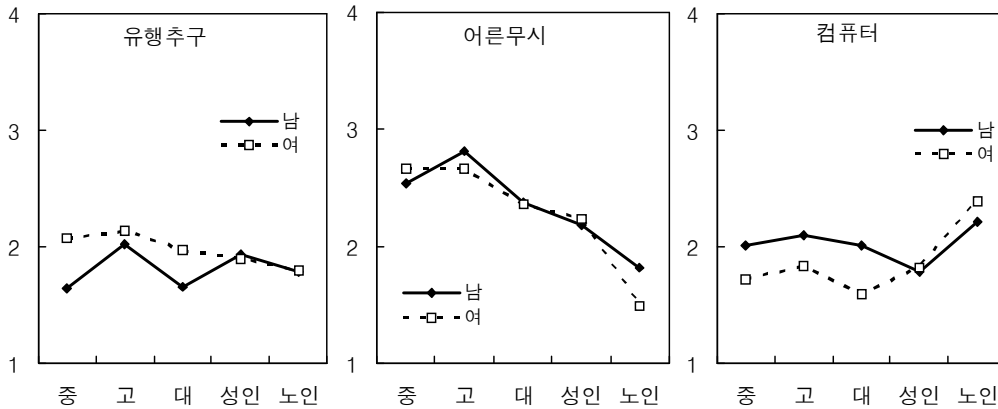


그림 3. 청소년의 일상행동 빈도의 지각에서 세대집단 x 성별 상호작용

1) 빈도지각

표 5에 제시된 대로, 빈도지각의 4개 하위 변인 모두에서 세대집단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남녀간에도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유행추구 점수는 고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다른 네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청소년의 어른무시행동의 빈도는 중고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각했고, 대학생과 성인이 그 다음 순이었으며, 노인이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산만행동 빈도도 이와 비슷하게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각했고, 그 다음이 성인이었으며, 중학생과 노인이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컴퓨터행동 빈도는 다섯 세대집단 중에서 노인이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나머지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집단과 성별간 상호작용은 산만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하위변인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림 3에 이 상호작용들을 제시하였다. 유행추구 행동의 경우 중학생 $t(142) = 3.403, p < .01$ 과 대학생 $t(180) = 4.041, p < .001$ 은 여자가 남자보다 자신들이 이런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지각했으나, 고등학생은 남

녀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성인과 노인도 청소년들의 유행추구행동 빈도 지각에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t_s < 1$). 어른무시 행동은 중·고·대학생과 성인은 남녀간에 빈도지각에 차이가 없었으나, 노인은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청소년 손자녀가 이런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다($t(125) = 2.610, p < .05$). 이와는 달리, 컴퓨터관련 행동에 대해서는 중·고·대학생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청소년들이 이와 관련한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했으나[중학생, $t(143) = 2.104, p < .05$; 고등학생, $t(133) = 1.871, p = .063$; 대학생, $t(181) = 3.878, p < .001$], 성인과 노인은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 산만행동은 상호작용은 없고 성별 주효과만 의미가 있었는데, 모든 세대집단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청소년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았다.

2) 문제정도 지각

빈도지각과 마찬가지로, 문제정도 지각도 4개 유형의 행동 모두에서 세대집단에 따른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났다. 그러나 빈도지각과는 달리 문제정도 지각에서는 4개 유형의

행동 모두에 대해 대체로 노인이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각했고, 그 다음 중학생과 성인이 이런 행동들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었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이런 행동들이 비교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다. 성별 주효과는 어른무시 행동에서만 의미가 있었고 나머지 행동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었다. 즉 세대에 관계없이 여자가 남자보다 어른무시 행동이 더 문제되는 행동이라고 보았다. 성별과 세대간 상호작용 효과는 어떤 유형의 행동에서도 의미가 없었다.

자녀/손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와 조부모 세대의 차이

자녀 또는 손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가에 따라 부모와 조부모의 가치관과 행동지각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6에 중·고·대학생 자녀/손자녀를 둔 부모와 조부모의 가치관 점수와 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가족가치관에서 자녀/손자녀집단에 따른 차이를 보면, 부모의 경우 4개 하위변인 모두에서 자녀연령이 높을수록(즉 중고생 부모보다 대학생의 부모가)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단, 가족주의는 $.05 < p < .10$), 조부모는 결혼 변인에서만 이러한 경향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부는 모보다 4개 하위변인 모두에서 점수가 더 높았으나(단,

표 6. 중·고·대학생 자녀/손자녀를 둔 부모와 조부모의 가치관 점수와 변량분석 결과

	가족가치관				일반가치관			
	가족주의 M(SD)	성역할 M(SD)	결혼 M(SD)	효도 M(SD)	가정화목 M(SD)	자아실현 M(SD)	부귀영화 M(SD)	사회봉사 M(SD)
중	3.86(.56)	1.98(.53)a	4.20(.72)ab	2.86(.72)a	4.34(.72)a	3.93(.93)	3.49(.89)	3.64(.87)
고	3.74(.52)	2.14(.63)b	4.07(.78)a	2.98(.68)ab	4.29(.72)a	3.99(.80)	3.49(.79)	3.68(.76)
대	3.87(.51)	2.15(.54)b	4.38(.68)b	3.10(.84)b	4.51(.55)b	4.15(.67)	3.52(.75)	3.84(.72)
부	3.86(.55)	2.25(.56)	4.26(.73)	3.11(.69)	4.34(.75)	4.04(.77)	3.53(.85)	3.63(.81)
모	3.77(.53)	1.91(.55)	4.11(.74)	2.80(.73)	4.37(.64)	3.96(.90)	3.46(.81)	3.74(.79)
전체	3.81(.54)	2.07(.58)	4.18(.74)	2.95(.73)	4.35(.69)	3.99(.84)	3.49(.83)	3.69(.80)
자녀집단	2.77	4.19*	5.00*	3.62*	3.22*	2.09	.06	1.56
F 부모성별	2.72	33.77***	6.52*	18.14**	.00	1.57	.99	2.13
상호작용	.52	.84	.43	.81	1.15	1.31	.06	.62
중	4.16(.44)	2.02(.54)	4.57(.41)a	3.52(.64)	4.53(.51)a	4.26(.75)	3.66(.80)	4.23(.64)
고	4.26(.41)	2.09(.60)	4.76(.46)b	3.73(.84)	4.78(.35)b	4.26(.77)	3.72(.75)	4.32(.63)
대	4.35(.43)	1.90(.55)	4.85(.30)b	3.81(.79)	4.78(.36)b	4.34(.61)	3.72(.89)	4.32(.55)
조부	4.16(.44)	1.97(.58)	4.76(.34)	3.64(.79)	4.72(.43)	4.26(.62)	3.63(.77)	4.22(.60)
조모	4.42(.36)	2.01(.55)	4.71(.47)	3.79(.74)	4.70(.41)	4.34(.78)	3.78(.86)	4.39(.59)
전체	4.27(.43)	1.99(.56)	4.74(.40)	3.70(.77)	4.71(.42)	4.29(.70)	3.70(.82)	4.30(.60)
손자녀집단	.80	1.34	5.24**	.92	4.47*	.16	.10	.15
F 조부모성별	14.96***	.22	.92	1.35	.22	.58	.39	2.38
상호작용	4.79**	2.28	.05	1.52	.56	.94	2.7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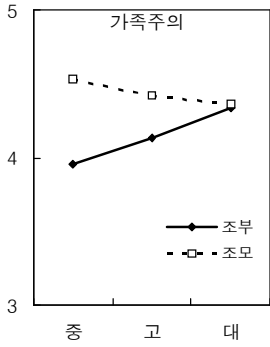


그림 4. 가족주의에서 손자녀집단 x 조부모성별 상호작용

가족주의는 $.05 < p < .10$, 조부와 조모는 점수 차이가 없거나(성역할, 결혼, 효도) 조부보다 조모의 점수가 더 높았다(가족주의). 즉 부모의 경우 대체로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가 모보다 더 전통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조부모는 가족 가치관 점수가 손자녀의 연령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부가 조모보다 더 전통지향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집단과 부모성별 간 상호작용은 부모의 경우 가족가치관의 4개 하위변인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았고, 조부모의 경우는 가족주의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조부는 손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주의 점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데 반해[중-고: $t(40) = 1.767, p = .085$; 고-대: $t(45) = -.833, p > .10$; 중-대: $t(47) = -2.610, p < .05$], 조모는 손자녀의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변동이 없었다(세 집단간 차이

표 7. 중·고·대학생 자녀/손자녀를 둔 부모와 조부모의 행동지각 점수와 변량분석 결과

	빈도 지각				문제 정도 지각			
	유행추구 M(SD)	어른무시 M(SD)	컴퓨터 M(SD)	산만행동 M(SD)	유행추구 M(SD)	어른무시 M(SD)	컴퓨터 M(SD)	산만행동 M(SD)
중	1.78(.73)a	2.12(.67)a	1.69(.70)a	2.14(.95)a	3.09(.92)	3.45(.88)	3.49(1.10)	2.86(.82)
고	2.05(.75)b	2.37(.85)b	1.87(.82)ab	2.75(.99)b	3.00(.98)	3.42(.95)	3.39(1.14)	2.78(.84)
대	1.87(.56)a	2.07(.64)a	1.93(.77)b	2.71(.75)b	2.95(.89)	3.35(.98)	3.34(1.02)	2.68(.73)
부	1.91(.77)	2.17(.78)	1.78(.78)	2.38(.96)	3.06(.97)	3.41(.94)	3.35(1.11)	2.82(.82)
모	1.89(.68)	2.23(.72)	1.81(.76)	2.56(.99)	3.01(.90)	3.43(.91)	3.49(1.09)	2.77(.80)
전체	1.90(.72)	2.20(.75)	1.80(.77)	2.47(.98)	3.03(.94)	3.42(.93)	3.42(1.10)	2.79(.81)
F	7.06**	6.81*	3.92**	22.03***	.74	.32	.66	1.38
자녀집단								
부모성별	.01	1.28	.39	3.69	.32	.08	1.47	.10
상호작용	2.20	.37	1.63	.45	.21	.26	.04	1.67
중	1.76(.70)	1.80(.77)	2.25(.82)	2.04(.90)	3.61(.73)	4.26(.66)	3.92(.81)	3.71(.78)
고	1.77(.60)	1.53(.75)	2.34(.91)	2.27(.96)	3.40(.71)	4.18(.70)	4.03(.76)	3.48(.97)
대	1.84(.66)	1.51(.54)	2.23(.84)	2.23(.91)	3.79(.86)	4.43(.52)	3.93(.68)	3.73(.74)
조부	1.80(.63)	1.82(.87)	2.21(.73)	2.14(.91)	3.57(.77)	4.24(.64)	3.96(.77)	3.62(.88)
조모	1.79(.69)	1.49(.51)	2.33(.96)	2.22(.94)	3.69(.81)	4.39(.59)	3.95(.70)	3.70(.74)
전체	1.79(.66)	1.62(.69)	2.27(.84)	2.18(.92)	3.63(.79)	4.31(.62)	3.95(.74)	3.66(.82)
F	40	1.51	.15	.92	2.71	1.66	.20	1.13
손자녀집단								
조부모성별	.16	5.53*	.58	.01	.89	2.72	.06	.24
상호작용	3.72*	1.36	.14	1.93	3.38*	2.61	.88	.81

검증 결과 전부 $p > .10$). 그러나 조모의 경우 가족주의 점수가 5점 척도에서 평균 4.42로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손자녀의 연령에 따른 점수변동이 없었던 것은 천장효과의 작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가치관은 부모와 조부모 모두 가정화목에서만 자녀/손자녀 집단에 따른 주효과가 있었다. 즉 가정화목의 경우 가족가치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고생 부모보다는 대학생 부모가 가정화목 점수가 더 높았고, 중학생 손자녀를 둔 조부모보다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손자녀를 둔 조부모가 더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조부모 모두 자녀/손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화목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하위변인에서는 자녀/손자녀 집단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성별 효과나 상호작용도 전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7에는 중·고·대학생 자녀/손자녀를 둔 부모와 조부모의 행동지각 점수 및 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일상행동에 대한 빈도 지각을 보면, 부모의 경우 4개 하위 변인 모두에서 자녀집단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대체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유행추구, 어른무시, 컴퓨터관련, 산만행동의 4개 유형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지각했고, 중학생 부모들이 자녀가 그런 행동들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지각했다. 성별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부모의 경우 문제정도 지각에서는 자녀집단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이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도 전혀 없었다.

부모와는 달리 조부모는 빈도지각에서 손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른무시 행동의 빈도지각에서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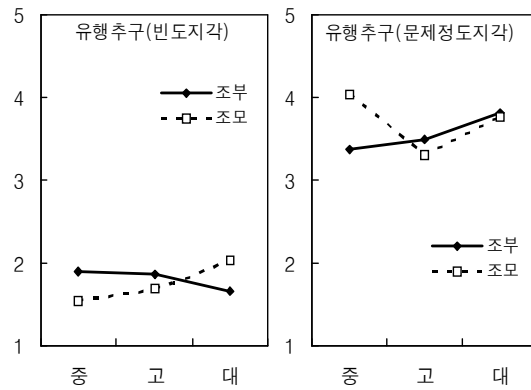


그림 5. 유행추구행동의 빈도지각과 문제정도 지각에서 손자녀집단 x 조부모성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조부가 조모보다 손자녀들이 어른을 무시하고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다. 또 빈도지각과 문제정도 지각 둘 다에서 유행추구행동의 상호작용 효과가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즉 중학생 손자녀의 조모보다 대학생 손자녀의 조모가 손자녀들이 그런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았으나 [$t(39) = -2.06, p < .05$], 조부는 유행추구행동의 빈도지각에서 손자녀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제정도 지각의 경우 조모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손자녀보다는 중학생 손자녀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중-고: $t(30) = 2.94, p < .01$; 고-대, $t(42) = -1.78, p = .082$; 중-대, $t(40) = 1.02, p > .10$], 조부는 연령이 높은 손자녀일수록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 $t(42) = -.95, p > .10$; 고-대, $t(42) = -1.05, p > .10$; 중-대, $t(48) = -2.00, p = .051$].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는 세대간에 차이점과 유사점이 둘 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근래에 이루어진 많은 연구를 볼 때 이러한 결과가 진실에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에 따라 논의하기로 하겠다.

세대간 차이점

먼저 중·고·대학생과 성인, 그리고 노인은 가치관과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첫째, 전통적인 가족가치는 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성인이었으며, 중·고·대학생 중에서는 특히 고등학생이 가족중심 가치관의 중요성을 가장 낮게 보고 있었다. 즉 대체로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결혼을 중시하고, 가족 중심적이며, 장남우선의 가부장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예, 김경신, 1998a, b; 박혜인, 1990; 옥선화, 1989), 가족의 중요성이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젊은 층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둘째, 노인은 사회봉사,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자아실현, 그리고 중학생은 가정화목을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인은 다섯 집단 중에서 자아실현, 가정화목, 부귀영화를 가장 덜 중시하고 있었으며, 다른 세대집단과 비교해볼 때 뚜렷하게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

과는 노인은 사회봉사, 10대와 20대의 젊은 세대는 자아실현을 삶의 목표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김의철 등(2000)의 결과와 대단히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삶의 중요한 목표로 보는 가치가 중학생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중·고·대학생 중에서는 고등학생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유행추구, 부모무시, 산만행동을 더 많이 하였고 컴퓨터관련 행동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조부모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청소년 특유의 행동을 하는 빈도를 중·고·대학생들보다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조부모가 특히 더 그러하였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빈도를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중학생 자녀의 부모들은 가장 낮게 지각하였으나, 조부모는 손자녀의 연령에 따른 그와 같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부모가 부모에 비해 청소년 손자녀의 행동에 대해 그다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행동유형별로 보면 조부모는 다른 세대집단에 비해 청소년이 유행추구, 어른무시, 산만행동을 하는 빈도는 더 낮게 지각하였으나, 청소년이 컴퓨터관련 행동을 하는 빈도는 다른 세대집단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이 흔히 하는 행동들에 대해 가장 크게 문제를 느끼는 것은 조부모였다. 부모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보다는 그런 행동들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였지만 조부모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조부모는 청소년

손자녀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 부모만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손자녀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 부모보다 더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부모는 청소년 손자녀의 다른 어떤 행동보다도 특히 컴퓨터관련 행동에 더 신경을 쓰고 이런 행동을 유난히 더 못마땅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청소년들의 컴퓨터관련 행동 빈도를 높게 지각하고 또 이런 행동들을 특히 문제 삼는 이유는 인터넷이나 통신기기의 활용이 필수적인 디지털 시대에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합류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컴퓨터가 없는 생활은 아예 상상하기조차 힘든 젊은 세대를 보면서 느끼는 소외감에서 일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소년과 노인 세대의 인식차이를 줄이면서 그러한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컴퓨터 친화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대간 유사점

세대집단 간에 이상과 같은 차이점이 있었으나,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도 있었다.

첫째,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가족구성원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자아실현을 하거나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사회봉사를 하는 것보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정화목은 전체평균이 4.52점이었으며 다섯 세대집단의 최저점수는 4.35점이고 최고점수는 4.73점이었는데, 이 값들이 5점 척도상의 값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대구분에 관계없이 가정화목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분석해본 박광배와 김미숙(1992)은 이들의 가치체계가 시대변화에 따라 바뀐다 해도 우리 문화의 근간이 되는 집단주의적 가족문화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목한 가정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도 빈번히 보고되는 결과이다(예, 김경신, 1998a; 김명언 등, 2000; 김의철 등, 2000; 박광배, 김미숙, 1992; 윤진, 1985).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가족에 대해 강한 심리적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김명언, 1997)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의 중요성이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젊은 층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가족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성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도 모든 세대에서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노인과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도 여전히 가족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들이 상호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그런 가정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중·고·대학생과 성인, 노인의 다섯 세대 모두 결혼, 가족주의, 효도와 관련한 가족가치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데 반해, 남녀역할을 차별적으로 구분하는 경향은 상당히 낮은 편(5점 만점에 평균 1.91점)이었다. 모든 세대에서 가족가치를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젊은 세대뿐 아니라 나이든 세대까지도 모두 상당히 남녀평등적

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1970년대와 1990년대 한국인의 가치관을 비교하면서 남녀평등의식이 20년 사이에 크게 신장되었음을 보여준 나은영과 차재호(1999)의 결과와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결혼한 여자도 사회활동을 해야 한다거나 친정과 시댁(본가와 처가)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0년에서 90년에 이르는 동안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역할과 관련해서 이와 같이 진취적인 방향으로의 인식변화가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어 실생활에서 그대로 구현되는지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앞으로 가치관 변화와 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소년이 흔히 하는 행동 중에서 어떤 것이 특히 문제가 되고 어른의 눈에 거슬리는지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이 노인과 성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노인과 성인뿐 아니라 중·고·대학생들도 어른을 무시하는 행동이 가장 용납되기 어려운 문제행동이라고 보고 있었고, 산만행동은 상대적으로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다.

이상의 여러 공통점들은 세대간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갈등을 극복해내고 세대간 화합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과 세대의 상호작용

지금까지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가 가치관과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또 세대에 따라 성별효과가 각기 달리 나타나는 상호작용이 몇 군데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이 결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전통적 가족가치 지향에서 세대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달리 나타났다. 중·고·대학생은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전통적인 가족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인은 남녀차이가 그리 분명하지 않았으며, 노인의 경우에는 남녀차이가 없거나(성역할, 결혼, 효도) 오히려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더 가족중심적인 가치를 선호하는 것으로(가족주의)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전통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결과는 상식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통적 가족주의를 중시하는 쪽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더 급격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청소년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보수적이지만 성인이 되면 그러한 차이가 줄어들고 노인이 되면 오히려 여자가 남자보다 전통적 가치를 더 중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경향은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김의철 등(2000)은 세대집단에 따른 보수지향 가치관과 전통적 역할행동의 차이를 살펴 보면서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김경신(1998b)도 청소년기와 중년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지니고 있지만, 노년기에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거나 여성이 더 전통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얻었다.

우리나라 여성이 나이가 들수록 남성에 비해 더 전통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결과를 거

꾸로 놓고 보면 젊은 여성들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전통적 가족가치를 거부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요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며 결혼을 한다 해도 자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면 근래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그 필연적인 귀결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또 사회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도 세대집단에 따라 성별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에 위치한 세대인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은 사회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이들에 비해 사회봉사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중학생과 노인의 경우 중학생은 남자가, 노인은 여자가 사회봉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다시 말해,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사회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도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에 따라 더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들면서 남자는 은퇴 등으로 사회활동이 줄어드는 반면 여자는 자녀출가 등으로 집안 일이 줄면서 오히려 외부활동이 늘어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년기에 부부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남자노인들의 봉사활동을 독려하고 봉사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세대차를 가져오는 요인들에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러한 요인들이 각 세대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

을 하는지를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연령 특정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혹은 정서적 특성의 성별차이가 연령에 따라 변화의 양상이 달리 나타난다면(또는 연령차이가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면), 그러한 특성이 가치관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의 세대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문항 수가 적은 일부 변인들은 신뢰도가 낮았으며 따라서 이 부분의 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측정변인의 문항 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표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고·대학생과 성인 집단, 노인집단으로 연령집단을 세분화하여 세대차를 연구함으로써 선행연구에 비해 세대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좀더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흔히 중고생은 (때로 대학생까지도) 청소년이라는 하나의 세대로 분류되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가치관과 청소년 행동의 문제정도 인식에서 중·고·대학생이 차지하는 위치가 들쭉날쭉하게 각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처럼 이들 집단을 하나로 묶어 동질적인 집단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각기 별개의 집단으로 하여 상호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인집단과 노인집단도 좀더 세분화하여 세대간 차이 또는

유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강호철(1984).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대한 조사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미혜(1993). 은폐된 성, 과장된 성: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한 연구. 부산여대 여성연구 4, 27-47.
- 김경신(1998a).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가치관과 세대간 유사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 43-65.
- 김경신(1998b).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노년, 중년, 청소년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 145-160.
- 김명언(1997). 정부정책, 가족생활, 그리고 직장에서의 공정성. 석현호(편).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8장. 서울: 나남출판사.
-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 181-204.
- 김순옥, 류점숙(1984).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가족가치관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남대학교 논문집, 73-101.
- 김영옥(1983). 혼전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애순(1997). 청년기 갈등과 자기이해.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진우, 유호식(2000).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 119-145.
- 김일명, 김명자(1989).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 59-78.
- 김현정(1994). 생활문제 지각에 나타난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세대차: 차별적인 '사회적 표상'의 형성과 내용.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은영, 민경환(1998). 한국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 75-93.
- 나은영, 차재호(1999). 1970년대와 1990년대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및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 37-60.
- 박광배, 김미숙(1992). 한국청소년의 집단주의적 가치체계: 가족관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 62-75.
- 박임옥(2000). 중학생과 부모의 세대차 인식과 심리 행동 차이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숙(1984). 대학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 129-147.
- 박재홍(1999). 기성세대의 생애사와 세대차이 인식에 관한 연구: 질적 접근. 한국사회학, 33, 257-296.
- 박혜인(1990).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가치관. 가정학 연구의 최신정보 III. 교문사.
- 신은숙(1976). 세대간의 갈등문제와 교육. 교육학연구, 14, 59-69.
- 양명숙(1996). 예비 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관한 연구 - 대전지역의 남녀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 167-181.
- 옥선화(1984). 가족가치관.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 II. 대한가정학회편. 교문사.
-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진(1985). 성인·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동수(1987). 가족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52권.
- 이은경(1999). 대학생의 가족주의가치관과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 37, 45-65.
- 이재창, 최운보, 정영애, 최경선(1983). 청소년 의식 구조 및 형성배경.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임희섭(1986).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정음사.
- 임희섭(1997).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출판.
- 장휘숙(1995). 한국대학생의 성에 대한 가치관 연구. 전환기에 선 한국인의 가치관(한림과학원 편, pp.155-213). 서울: 소화.
- 정철희(1997). 문화변동과 사회민주화: 탈물질주의 가치와 공중-주도 정치. 한국사회학, 31, 61-83.
- 정태연(2001). 대학생 자녀와 그 부모가 평가한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 1-19.
- 정태연, 한광희(2001). 20대가 지각한 청소년과 성인과의 세대차이. 한국노년학, 21, 1-14.
- 조성남(1991). 부모와 자녀의 세대차이에 관한 일 연구.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요약집, 66-73.
- 조소연, 오윤자(2001). 부모의 가족가치관 및 관련 변수가 미혼성인자녀의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 271-284.
- 조혜선(1990). 한국사회의 세대구분과 세대차이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재호(1985). 70년대 말에서의 가치, 태도 및 신념으로 본 한국인의 세대차. 사회심리학연구, 2, 129-168.
- 한경순(1999). 남녀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139, 13-24.
- 홍준숙(1987).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상민, 김현정(1996). 사회적 표상의 개념으로 분석한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인식차이: 일상생활의 문제행동 빈도와 중요성 지각에서 나타난 의사소통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 229-250.
- Bengtson, V. L. (1975). Generation and family effects in value social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 358-371.
- Elder, G. H. Jr. (1981). History and the life course. In D. Bertaux(Ed.), *Biography and society: The life history approach in the social sciences* (pp.77-115). Beverly Hills, Calif: Sage.
- Elder, G. H. Jr. (1994). Time, human agency, and social change: Perspectives on the life cours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7, 4-15.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nnheim, K.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pp.276-32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차 원고 접수 : 2005. 1. 14
수정 원고 접수 : 2005. 2. 16
최종게재결정 : 2005. 2. 21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regard to value orientations and the perception of adolescents' daily behaviors

Myung-Sook Chung

Kkottongnae Hyundo University

Hei-Rhee Gh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generational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regard to value orientations and the perception of adolescents' daily behaviors. A total of 1,067 participants (464 adolescents, 465 adults, and 138 older adults) took part in this study. The results exhibited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cross the generations. First, although young people valued marriage and family not as highly as older people did, young as well as older people put greater significance on domestic peace relative to others. Second, parents and grandparents were more likely to rate adolescents' behaviors such as chatting on the internet all night as problematic than adolescents would. However, all the generations unanimously considered adolescents' adult-ignoring behaviors to be the most problematic.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Keywords: generation gaps, value orientations, family value orientations, adolescents